(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실용신안공보(Y1)

(51) Int. Cl.[6]
A23F 27/00

(11) 등록번호 실0115005

(21) 출원번호	실1995-013210	(65) 공개번호	실1995-026154
(22) 출원일자	1995년06월13일	(43) 공개일자	1995년10월16일

(73) 실용신안권자 이완재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924-6
(72) 고안자 이완재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924-6
(74) 대리인 이원희

심사관 : 홍순표 (책자공보 제2666호)

(54) 성냥갑

요약

본 고안은 성냥갑에 관한 것으로, 성냥갑의 한면을 밀면 성냥갑의 속부분을 이루는 직육면체가 밑면이 고정된 채 비스듬이 밀려나오는 것으로서 그 여는 방법이 독특하다.

대표도

도1

명세서

[고안의 명칭]

성냥갑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고안의 사용상태도.

제2도는 본 고안의 분해도.

[실용신안의 상세한 설명]

본 고안은 성냥갑에 관한 것으로, 성냥갑의 한면을 밀면 성냥개비가 들어있는 통이 비스듬이 되면서 열리는 것이다.

종래의 성냥갑은 성냥갑의 겉부분을 이루는 육면체와 성냥개비가 들어 있는 속부분을 이루는 육면체가 서로 따라 되어 있었으나 본 고안은 성냥갑의 겉부분을 이루는 육면체(1)의 일면(3)과 속부분을 이루는 육면체(2)의 일면(3)이 한면으로 되어 있고 성냥갑의 속부분을 이루는 직육면체(2)가 비스듬히 되면서 열리는 것이다.

즉 성냥을 꺼내기 위하여 성냥갑을 여는 경우 성냥갑의 한면을 밀면 성냥갑의 속부분을 이루는 직육면체(2)가 밑면(3)이 고정된 채 반대쪽으로 비스듬히 밀려나오고, 밀려나온 부분 윗면에는 성냥개비와 마찰되어 불을 일으키는 부분(4)이 있고, 밀려나온 부분 옆면(5)은 뚫려 있으며, 그 곳으로 성냥개비가 나올 수 있게 되어 있다.

즉 성냥개비와 마찰되어 불을 일으키는 부분(4)이 밀려나온 육면체(2)의 윗부분(4)에 있고, 밀려나온 육면체(2)의 한쪽 옆부분(5)이 열려 있어서 그곳을 통하여 성냥개비가 나오게 되어 있다.

따라서 본 고안은 성냥개비와 마찰되어 불을 일으키는 부분(4)이 밀려나오는 육면체(2)에 있어서 평상시에는 성냥갑 겉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겉모양이 깔끔한 육면체 형상을 이룬다.

즉 본 고안은 열리는 방법이 독특할 뿐만 아니라 성냥개비와 마찰되어 불을 일으키는 부분(4)이 속부분으로 들어가 있어서 성냥갑이라기 보다는 예쁜 상자 모양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서, 육면 모두에 장식용 내지 선전용 그림이나 문구를 실을 수 있다. 따라서 본 고안의 성냥갑은 특히 선전용 성냥갑 등에 사용하기에 적당하다.

이와 같은 본 고안의 성냥갑은 다음과 같이 만들 수 있다.

제2도는 본 고안의 성냥갑의 분해도이다.

제2도에서 (1)을 M'에 붙이고 (2)를 M'에 붙인 후 Z를 X'에 90° 로 접는 방법에 의하여 본 고안의 성냥갑을 만들 수 있다.

여기서 M1 Y1 M3 Y2은 성냥갑의 겉부분 육면체(1)를 이루고, M1 X1 M3 X2은 성냥갑의 속부분 육면체(2)

를 이룬다. 여기서 M1이 겉부분 육면체와 속부분 육면체를 고정시키는 면(3)이다.

성냥개비와 마찰되어 불을 일으키는 부분은 속부분 육면체를 이루는 M2부위에 있다. 성냥개비를 꺼내기 위하여 성냥갑을 여는 경우 성냥갑의 한면을 밀면 성냥갑의 속부분을 이루는 육면체(2)가 밀려나오면서 밀려나온 부분의 2개의 옆면중 한면은 Z로 막혀 있으므로 성냥개비가 나오는 부분은 Z의 맞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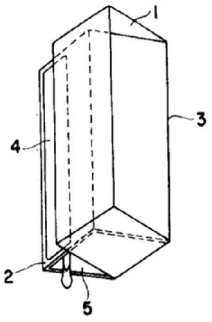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성냥갑의 겉부분을 이루는 육면체(1)와 속부분을 이루는 육면체(2)의 일면(3)이 한면으로 되어 있고, 성냥갑의 한면을 밀면 성냥갑의 속부분을 이루는 직육면체(2)가 밑면(3)이 고정된 채 비스듬이 밀려나오고, 밀려 나온 부분 윗면에는 성냥개비와 마찰되어 불을 일으키는 부분(4)이 있고, 밀려나온 부분 옆면(5)이 뚫려 있어서 그 곳으로 성냥개비가 나올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성냥갑.

도면

도면1



도면2

